

지난해 전남 귀농 1천966가구...전국 두 번째

국내 귀농·귀촌·귀어 33만여가구...대부분 1인가구 서비스업 중심 도시지역 경기 회복 영향 전년비 감소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귀어 가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는 경북, 귀촌은 경기, 귀어는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국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전년보다 감소한 33만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귀농·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2천411가구, 31만8천769가구, 951가구 등 총 33만2천31가구로 조사됐다.

귀농과 귀촌 가구는 각각 13.5%, 12.3% 감소했고, 귀어 가구는 16.2% 줄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등으로 귀농·

귀촌 가구 수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 지역 경기가 회복되며 다시 감소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귀어 가구의 경우 2021년에는 증가해 1천100여가구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천1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은 각각 1만2천600명, 42만1천106명, 1천25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비 감소율은 귀농인 12.5%, 귀촌인 15.0%, 귀어인 15.9%다.

귀농 가구를 보면 시도별로는 경북이

2천500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남 1천966가구, 충남 1천56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4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고, 귀농 가구의 75.3%는 1인가구로 파악됐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8천679명으로 68.6%를 차지했다. 작물 재배 가구의 평균 재배 면적은 0.32ha로, 주요 작물은 채소 45.4%, 과수 33.7% 등이었다.

귀촌 가구는 경기도가 8만5천174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3만7천919가구, 경북 3만6천74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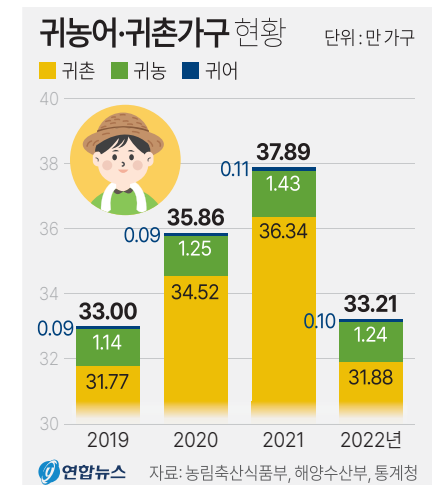
귀촌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7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가 각 21.1%씩으로, 20·30세대가 귀촌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가구의 주요 전업 사유는 직업(34.7%), 주택(24.7%), 가족(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 가구의 77.6%는 1인 가구였고, 귀촌 가구원으로부터 구성된 단일 가구가 70.2%였다.

귀어인은 충남이 347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남 297가구, 전북 107가구 순이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4세로



전년보다 0.8세 높아졌다.

귀어 가구의 77.3%는 1인 가구였고, 귀어인 가운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07명(68.1%)이었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코스피·환율 상승 22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증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장보다 11.07포인트(0.43%) 오른 2,593.70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68포인트(0.08%) 오른 876.38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294.9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210원 요구 올해 대비 26.9% 많아...경영계 “문 닫으라는 말” 반발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업 범위 확대에 의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5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1.4%인데, 1만4천455원의 81.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제조업 취업자 1년새 5만명 줄었다

종사자 1-4인 영세업체서 감소분 90% 차지

올해 들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분의 90%가 종사자 5인 미만인 업체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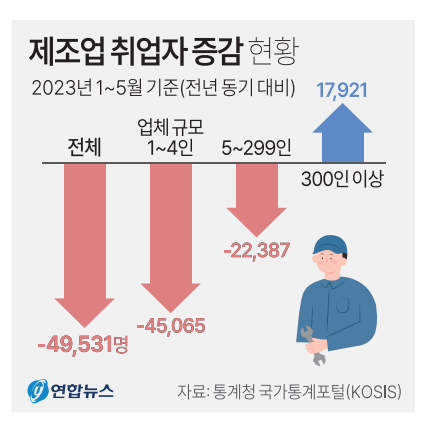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명)보다 5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1-4인 업체에서 올해 4만5천명 줄었다.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6만명)의 90%를 차지했다.

종사자가 5-299인 업체에서는 2만2천명 줄었다.

반면 종사자가 300인 이상 업체에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취업자의 감소 폭도 더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2만4천명, 임시근로자는 2만2천명 각각 줄어 상용근로자 감소분(-3천명)보다 많았다.

제조업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6천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천명 감소했다.

건설업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2천명 줄었다.

종사자가 1-4인 업체에서 6만1천명이 줄어든 반면, 5-299인에서는 2만4천명, 300인 이상에서는 5천명 각각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는 1만8천명 늘었다.

소규모 업체로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장일수록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청 구조가 공고하게 짜여 있어서 수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타격이 오면 하청업체부터 충격을 받고 조정돼 나가는 경향이 클 것”이라며 “고용 안정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총, 오늘 이영욱 교수 초청 금융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2일 금요일 오전 7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1600회 금융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영욱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를 초청 ‘인간과 우주’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영욱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교 천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원, 예일대 천문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NASA 공로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주제로 천문학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강

연할 예정이다.

광주경총 금융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를 시작한 이래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CEO와 지역민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임채만 기자

상무지구 상가 (매매)

▶ 중심 상업지구

(6층, 7층) = 140평

시세 → 14억

급매 6억8천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장성토지 매매

▶ 장성호(댐) - 5분

광주 - 20분

토목공사 완료

6m 도로접

(100평, 150평, 200평 가능)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 광산구 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29억 → 최저가 20억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정가 50억 → 최저가 28억
-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22억
-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2천
-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19억

010-6670-9800